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골 2: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바쳐진 자로서 자기의 얼굴을 아는 자들을 위해서든지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든지 충성되이 일하고자 애썼다. 교회 직분자들, 특히 말씀의 봉사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해야 할 것이다.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힘쓴 목표는 우선 성도들이 마음에 위로를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이해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었다. 진리의 확신과 사랑의 연합은 참 교회의 모습이다. 주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고(요 13:35) 그 사랑의 연합은 참 지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만한 이해’라는 원어(테스 플레로포리아스 테스 쉬네세오스)는 직역하면 ‘이해의 충만한 확신’ 혹은 ‘충만한 확신을 가진 이해’라는 뜻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충만한 확신을 가진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조금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충만한 이해와 확신을 가진다는 뜻이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신비 중의 신비이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도 신비한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 세상에서 처음 이루어진 신비한 사건이다. 그의 신비한 부활체는 장차 모든 성도들이 입게 될 부활체와 같다고 보인다. 또 그의 몸된 교회도 신비한 것이다. 특히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은

비밀스런 사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사실도 신비한 일이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시다.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릴 때부터 지혜가 충족하셨다. 누가복음 2:40,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사야 11:2는 메시아에게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 머물러 계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진행해왔고 온 우주와 세계는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당시에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려 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함을 주장했다. 오늘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에 더하여 사람의 지혜와 이성을 의지하려는 자유주의자나 신비 체험을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는 속이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충족한 구주이시며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히 13:8)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확신함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들의 거짓말들에 속지 말아야 한다.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규모’라는 원어(탁시스)는 ‘질서’(KJV, NIV), ‘규율’(NASB)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또

‘믿음의 굳은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확신은 성경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잘 훈련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한 것을 보며 기뻐하였다.

[6-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본질의 주동사는 ‘행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고 본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원어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으니”라는 뜻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구주와 그리스도 곧 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였다는 뜻이다.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한 베드로의 대답과 같다(마 16:16).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9-10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요한복음 1:12는 “영접하는[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한다. 여기에 교회의 기초가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지식과 믿음 위에 세워졌다. 교회는 세상적 교제의 모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모임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세 가지 내용을 권면했다. 첫째로,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환난이 닥칠 때 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려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을 교훈하셨다(마 13:21).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은

‘교훈을 받은 대로’ 즉 성경말씀을 통해 될 수 있다. 다윗은 시편 19:7-8에서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말하였다. 누가는 누가복음 1:1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확정된(fully established), 지극히 확신하는(most surely believed)(KJV) 사실에 대하여”라는 뜻이다. 또 누가는 그가 복음서를 쓴 목적을 “이는 [데오빌로]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certainty)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고 말하였다(눅 1:4).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0-31)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다. 로마서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였다.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 됨과 천국 백성의 특권을 은혜로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구원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은 이미 골로새서 1:3-5에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인하여 즉 그들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증거했고, 1:12에서는 그들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에베소서 1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우리의 찬송의 제목, 찬송의 이유, 우리의 헌신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지옥에 가야 마땅했던 죄인을 은

혜로 구원하여 그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신 이 놀라운 구원, 그의 크신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찬송과 감사를 넘치게 그에게 돌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그를 위해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풍성히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한다. 이것이 본문의 강조점이다.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적 신앙고백이나 예배보다 실제적 삶을 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 15:22).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귀하고 중요하지만, 실상 그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더 중요하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된 예배는 우리의 정상적인 삶, 즉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데서 시작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안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그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과 그의 신성(神性), 그의 속죄사역과 그의 부활 또 그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온 세상의 회복과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영광 등을 포함한다.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복된 진리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더욱 풍성하게 알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 또 잘 훈련된 인격과 삶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는 온갖 오류를 조심하고 바른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구주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구주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것은 순종의 삶이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와 삶이다.

주일오후설교 **작은 책을 먹음**

[계 10:1-4]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본절의 매우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천사는 주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신약성경과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로 표현한 곳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6절에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는 것도 천사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은 펴 있는 책이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증거될 종말 예언은 공개된 내용이다.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선 것은 그 예언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보인다. 과연 그는 그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사자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발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말세에 큰 소리로 외쳐야 할 경고의 말씀이다. 사도 요한은 일곱 우리의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으나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다. 일곱 우리 소리들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래의 사건들의 계시 범위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 있다.

[5-7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혹은 “시간이 더 이상 없으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자이시다.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종말의 사건들과 심판은 그의 손 안에 있다. 세상의 창조자께서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 사람들이 바라고 의지할 자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은 창조자나 주인이 없는 수수께끼 같은 곳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만드셨고 그가 다스리시는 세상이다.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참 평안을 얻는다.

그 천사가 맹세하며 말한 내용은 일곱째 천사의 나

1) 본장에는 ‘작은 책’이라는 말이 네 번 사용되었다. 전통 사본에 보면 비블리온(βιβλίον)이 두 번(2, 10절), 비블리다리온(βιβλιδάριον)이 두 번(8, 9절) 사용되었다. 그 두 단어는 다 ‘작은 책’이라는 뜻이다.

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골로새서 2:2,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성육신(成肉身), 그의 대속의 죽음, 그의 부활, 승천, 재림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때가 되어 이루어졌고, 이제 그의 재림 하나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남은 종말 사건들은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22:20,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의 정하신 때에 다 성취될 것이다.

[8-11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갓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갓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임궤들에게에 관하여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천사의 손에 펴 놓인 그 작은 책은 종말 예언의 책인데, 요한계시록 전부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11장부터의 내용을 가리킬 것이다. 책을 취하여 먹는다는 것은 종말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뜻할 것이다. 성경은 영의 양식이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힘써야 한다. 모든 성도들은 성경말씀에 정통해야 한다. 이것은 성도에게 거룩한 의무요 복된 특권이다. 입에 단 것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의 즐거움을 말할 것이다. 시편 119:92, 143, “주

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러나 배에 쓴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내용을 음미할 때 오는 마음의 고통과, 이 말씀을 지키며 전하려 할 때 예측되는 고난을 나타낼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렘 4:19-20). 사도 요한은 이제까지 예언하였지만, 다시 온 세계의 나라들과 백성들에 관하여 예언해야 했다. 요한이 먹은 종말 예언의 말씀들은 책에 기록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말씀들이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셔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 사건들에 대한 예언은 봉인된 내용이 아니고 세상에 공개된 내용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둘째로 이 세상과 역사의 대종말이 곧 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며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그런 종말 의식이 필요함을 교훈한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은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한다. 누가복음 21:34-36,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닷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잠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人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셋째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 예언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즉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소식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그 내용 중에는 이 세상과 역사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진리도 포함된다. 사도행전 17:30-31,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시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셨고(마 4:17), 또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셨다(눅 24:47). 확정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죄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증거한다.

2) 전통사본에는 본절에 에피(επι)라는 전치사가 두 번 사용되었다. 그것은 ‘관하여’라는 뜻이다. ‘concerning’ (NASB), ‘about’ (NIV).